

# '동부권 발전' 시·군 협력 다짐

### 전북도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제11차 정기총회 개최... 협의회장 전춘성 군수 연임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진안, 남원, 무주, 장수, 임실, 순창)는 지난 28일 진안군청 상황실에서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제1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는 전춘성 진안군수, 최경식 남원시장, 황인홍 무주군수, 최훈식 장수군수, 이민숙 임실부군수, 최영일 순창 군수를 비롯해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총회에서는 △제7기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장 선임 △지방소멸대응기금 동부권 연계사업 발굴 운영 △광역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국도 26호선(완주소양~진안부귀) 도로개량 촉구 건의문 등을 논의했다.

회의를 통해 제7기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장으로 기존 6기 회장인 전춘성 군수의 연임이 결정됐다.

또한 각 시군은 지자체에 적합한 동부권 연계사업 발굴·신청으로 전북도의 부가계획 수립단계부터 반영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할 것을 다짐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동부권 지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진안, 남원, 무주, 장수, 임실, 순창)는 지난 28일 진안군청 상황실에서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제1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자체에서 추진 중인 광역 소각시설 대비 부담을 상향 공동 견디고 전주와 동부권을 연결하는 안전한 도로망 구축을 위한 국도26호선(완주소양~진안부귀) 도로개량 촉구 건의문 채택 등을 통해 시군이 함께 협력해 동부권 발전을 위해 노력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전춘성 군수는 "전라북도 동부권 시

장·군수협의회 제7기 협의회장으로 선임된 것에 대해 동부권 단체장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동부권의 발전을 위해 시·군간 적극적인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중앙부처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을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무주사랑상품권 구매한도 ↑

### 군, 1인당 기준 50만원→70만원으로 상향 지원

무주군이 3월부터 오는 12월까지 무주사랑상품권 구매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1인당 월 70만원으로 상향 지원하기로 했다. 지류상품권은 최대 30만 원까지 구매 가능하다.

최근 급증하는 물가와 어려운 경제 여건 가운데 지역주민과 소상공인의 어려움 극복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무주사랑상품권 구매한도를 70만원으로 상향해 연말까지 유지함으로써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소비를 늘려 튼튼한 경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이외에도 쿠키 25억5천만 원을 확보해 상품권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쿠키 13억 원 보다 2배 이상 증가된 금액으로 인구감소지역인 무주군의 상품권 보급 사업 진행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광판, 홈페이지 게시 등 다각도의 홍보를 진행해 최대한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기자



카드형 무주사랑상품권

다. 군은 상품권 구매한도 상향시 월 평균 40억 원의 상품권이 판매될 것으로 예상했다.

황인홍 군수는 "어려운 지역경제를 감안해 당초 100만 원으로 상향하려 했으나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해 부득이하게 70만 원으로 조정했다"며 "쿠키 25억 5천만 원을 확보한 만큼 군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와 사업 진행에 최선을 다하겠다. 무주사랑상품권을 앞으로 애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기자

# 무주군, 설천면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순항'

무주군이 안전하고 깨끗한 수도물을 공급하기 위한 설천면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무주군 맑은물사업소에 따르면 적정 관경 상관을 위한 수리검토와 설계 및 시공감리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늦어도 오는 7월 본공사에 착수가 가능하게 됐다.

특히 이 사업의 경우 지난해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노후상수도정비 추가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쿠키 40억 원을 확보하는 등 재원마련에도 탄력을 받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무주군 설천중부력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80억 원을 투입해 노후 상수관로 교체 및 관망 정비

(배수관 L=11km, 급수관 5.4km)와 밸류 정비 50개소, 마을별 관리용 계량기 및 실시간 유량수압감시 시설 25개소를 설치 등 블록공법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오는 2025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한 계획으로 군은 이 사업을 통해 설천면 일원의 급수안정성 향상과 유수를 제고 향상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녹물발생과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수도물을 공급함으로써 수도물 신뢰도를 제고하고 누수 저감을 위한 안정적 수도물이 공급되면서 가뭄 및 물순에도 선제적 대응할 수 있는 효과를 얻게 됐다.

/무주=전문선기자

# 진안군, '부귀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문 활짝

### 농업인 편의 증진 위해 개소

면 지역 농업인들의 영농 편의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진안군 부귀면에 개소했다.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영농철에 한두 번만 사용하지만 영농에 필요한 고가의 농기계를 구매 없이 임대할 수 있어 농민들의 영농비를 절감하고 있다.

이는 민선8기 공약사업인 '농기계 임대사업소 확대 설치'와 관련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진안 본소, 정천 마면, 동향에 이어 5번째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문을 열었다.

부귀면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예산 총 12억2000만원(쿠키 6억원, 군비 6억2000만원)을 들여 농기계 보관소 신축 및 부귀면 농업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농기계 38종 85대를 완비 했다.

지난달 23일 열린 개소식에는 김종필 진안부군수를 비롯해 내빈 및 지역 주민 100여명이 참석해 부귀면 농기계



지난달 23일 진안군 부귀면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열린 가운데 김종필 진안부군수 등 관계자들이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임대사업소 개소를 환영했다.

진안군은 수시로 이용 주민의 애로 사항 및 건의 사항을 수용해 필요 농

기계를 추가로 구입하는 등 주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 장수군, 천혜의 계곡 활용 한여름 예술문화축제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장수군은 지난 28일 군청 회의실에서 최훈식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천혜의 계곡을 활용한 한여름 예술문화축제'의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군이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한 이번 용역은 대한민국 최초의 계곡 축제를 개최하여 볼거리·즐거거리를 제공하고 지역상품권 지원과 숙박연계를 통해 체류형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축제 기본구상 현황 보고 및 축제 콘텐트 프로그램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이 이뤄졌다.

또한 국내·외 현황 및 사례 조사 등을 바탕으로 밸리캠 레스토랑, 밸리 파이어, 쿨밸리 워터 페스티벌, 시금채취체험, 송어 잡기체험 등을 주제로 한 콘텐트들을 보고했다.

최훈식 군수는 콘텐트별 보완할 점 등을 언급하며 "장수하면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 개발을 확대하고 주민의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지역관광추진조직 육성 지원 공모 선정

### 장수군 협동조합 '이레', 올해 ESG 연계 기획사업 발굴 추진

장수군 협동조합 이레(대표이사 신인호)가 올해 한국관광공사에서 지역관광 현안 해결 및 지역관광추진조직(DMO) 육성을 위해 실시하는 공모 사업에 지난 27일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15개소는 신규 또는 2년 차 조직 12개소와 2년 차까지 지원받은 조직 중 올해 심사를 통해 3년차 후속지원을 받을 3개소로 구성됐다.

이레 협동조합은 올해 설립된 신규 조직으로, 지역관광추진조직으로부터 최대 2억5,000만원(1단계 쿠키 1억5,000만원, 지방비 1억원)과 단계에 따

라 기획사업 개발 전문가 상담 홍보 마케팅 사업을 추가로 지원받아 지원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 필수사업으로 지역별 실정에 맞는 환경, 사회, 투명경영(ESG) 연계 기획사업을 새롭게 발굴해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신인호 대표이사는 "코로나19로 인해 대한민국 관광 트렌드가 대도시 중심이 아닌 소규모 도시와 농촌지역으로 변하고 있다"며 "이번 지역관광추진조직 선정으로 장수군 협동조합 이레가 농촌관광을 선도하는 전담조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진안군, 공익직불제 담당자 교육

진안군은 지난 28일, 3월 2일~4일 28일까지 실시되는 2023년 공익직불금 대면접수에 앞서 정확한 안내와 접수를 위해 관내 11개 읍·면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익직불사업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군청 관계자와 11개 읍·면 담당자, 농산물 품질관리원 진안사무소 담당직원 등 18명이 참석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회의를 통해 공익직불금 업무 관계자들은 신청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철저한 사전준비와 담당자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직불금은 3월 2일~4월 28일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이행점검을 거쳐 11~12월 중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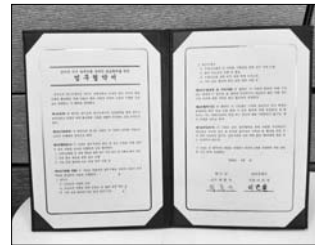
# 장수군-장수우체국, 농특산물 판매촉진 협약 체결

장수군이 지역의 우수 농특산물의 관촉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7일 장수우체국과 온라인 판매촉진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장수군과 장수우체국은 지역 농특산물의 판로 확대 및 마케팅 강화를 위한 상호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후지시마 소비 촉진을 위한 온라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모션은 설 명절 이후 둔화된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통합마케팅을 통한 농산물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했다.

최훈식 군수는 "협약을 통해 설 이후 둔화된 후지시마의 소비 촉진에 기여하고 소비자에게는 우수한 농특산



물을 할인된 가격에 선보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통합마케팅 활성화를 통해 재배 농가가 판로 걱정을 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참샘골 토마토랑 수박축제 2차 추진 간담회

### 축제명 선정 심의회 진행

장수군 계북면(면장 황우상)은 지난 27일 이장관 계북면 축제 추진위원장의 주재로 2차 축제 추진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지난 1차 추진 간담회의 참석 위원은 물론 계북면 토마토·수박 연구회의 반장과 이장관 장수군 지역활력센터장도 참여해 보다 전문적인 축제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1차 추진 간담회에서 '축제명' 공모에 나선 계북면 축제추진위원회는 이번 2차 간담회를 통해 축제명 선정심의회를 진행했다.

공모결과 접수된 12개의 축제명에 대해 추진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계북면의 특성과 본 축제의 의미를 가장 잘 살린 '계북면 참샘골 토마토랑 수박 축제'가 최종 축제명으로 선정됐다.

또한 축제추진위원회 TF팀에 대해 각 소관별 세부 업무 분장을 진행해 세부작업 축제 준비에 나섰다

/장수=고관호 기자

이장관 장수군 지역활력센터장은 계북면의 축제 준비사항에 대한 추진 방향을 잡아주는 설명회를 진행했으며, 주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축제 준비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의미있는 시간도 가졌다.

이장관 축제추진위원장은 "축제 추진위원회에 속해있는 여러 단체가 이번 간담회와 같이 지속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교류하는 회의 자리를 통해 보다 내실있는 축제 준비를 진행하며 성공적인 축제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황우상 계북면장은 "간담회를 통한 단계적 축제 준비가 이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 뜻깊은 자리였다"면서 "계북면을 대표하는 축제로 시작해서 더 나아가 장수군을 대표할 축제로 성장할 것을 기대하며, 본 축제 추진위원회 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단체와의 지속적인 협조 체계 구축으로 최선을 다해 축제 준비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지역 소식통

## 진안군,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공모 선정

진안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사업 대상으로 최종 선정됐다.

광역지체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이번 사업에서 전북도진안, 임실, 순창가 선정됨에 따라 해당 지자체는 매년 각각 5억원씩 3년 동안 최대 쿠키 15억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운영하게 된다.

진안군은 진안홍삼산과, 진안고원치유숲, 데미샘자연휴양림, 운장산자연휴양림, 명인명품관, 운일암반일암구름다리 등 치유·체험 시설들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및 지원을 계획해 웰니스 관광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사업추진에 있어 전라북도와 연계해 도를 찾는 외국인 의료관광객들을 유치해 명품 치유, 힐링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추진

무주군이 농민들을 대상으로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을 나선다. 고령화·여성화 되어가는 영농현장의 농업인을 위하여 안전한 농기계 수리와 작동법을 전달하고 적기영농을 통하여 생산비 절감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3월 2일부터 적산면 성내마을을 시작으로 오는 8월 무풍면 읍오마을까지 82개 마을을 대상으로 총 96회에 걸쳐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에 들어간다.

교육이 불편하고 농기계 수리 경험이 없는 산간 오지마을 중심의 현장 방문을 통한 수리 및 교육으로 자가 정비기술 능력을 습득, 향상시켜 농기계 고장으로 인한 영농활동 불편을 해소시킬 전망이다.

지난해 92마을 237농가를 대상으로 농기계 수명 연장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순회수리(교육)를 추진하면서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민사관 부차 지원사업도 병행해 추진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추진

무주군이 농민들을 대상으로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을 나선다. 고령화·여성화 되어가는 영농현장의 농업인을 위하여 안전한 농기계 수리와 작동법을 전달하고 적기영농을 통하여 생산비 절감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3월 2일부터 적산면 성내마을을 시작으로 오는 8월 무풍면 읍오마을까지 82개 마을을 대상으로 총 96회에 걸쳐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에 들어간다.

교육이 불편하고 농기계 수리 경험이 없는 산간 오지마을 중심의 현장 방문을 통한 수리 및 교육으로 자가 정비기술 능력을 습득, 향상시켜 농기계 고장으로 인한 영농활동 불편을 해소시킬 전망이다.

지난해 92마을 237농가를 대상으로 농기계 수명 연장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순회수리(교육)를 추진하면서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민사관 부차 지원사업도 병행해 추진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추진

무주군이 농민들을 대상으로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을 나선다. 고령화·여성화 되어가는 영농현장의 농업인을 위하여 안전한 농기계 수리와 작동법을 전달하고 적기영농을 통하여 생산비 절감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3월 2일부터 적산면 성내마을을 시작으로 오는 8월 무풍면 읍오마을까지 82개 마을을 대상으로 총 96회에 걸쳐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에 들어간다.

교육이 불편하고 농기계 수리 경험이 없는 산간 오지마을 중심의 현장 방문을 통한 수리 및 교육으로 자가 정비기술 능력을 습득, 향상시켜 농기계 고장으로 인한 영농활동 불편을 해소시킬 전망이다.

지난해 92마을 237농가를 대상으로 농기계 수명 연장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순회수리(교육)를 추진하면서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민사관 부차 지원사업도 병행해 추진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추진

무주군이 농민들을 대상으로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을 나선다. 고령화·여성화 되어가는 영농현장의 농업인을 위하여 안전한 농기계 수리와 작동법을 전달하고 적기영농을 통하여 생산비 절감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3월 2일부터 적산면 성내마을을 시작으로 오는 8월 무풍면 읍오마을까지 82개 마을을 대상으로 총 96회에 걸쳐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에 들어간다.

교육이 불편하고 농기계 수리 경험이 없는 산간 오지마을 중심의 현장 방문을 통한 수리 및 교육으로 자가 정비기술 능력을 습득, 향상시켜 농기계 고장으로 인한 영농활동 불편을 해소시킬 전망이다.

지난해 92마을 237농가를 대상으로 농기계 수명 연장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순회수리(교육)를 추진하면서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민사관 부차 지원사업도 병행해 추진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추진

무주군,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추진

무주군이 농민들을 대상으로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을 나선다. 고령화·여성화 되어가는 영농현장의 농업인을 위하여 안전한 농기계 수리와 작동법을 전달하고 적기영농을 통하여 생산비 절감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3월 2일부터 적산면 성내마을을 시작으로 오는 8월 무풍면 읍오마을까지 82개 마을을 대상으로 총 96회에 걸쳐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에 들어간다.

교육이 불편하고 농기계 수리 경험이 없는 산간 오지마을 중심의 현장 방문을 통한 수리 및 교육으로 자가 정비기술 능력을 습득, 향상시켜 농기계 고장으로 인한 영농활동 불편을 해소시킬 전망이다.

지난해 92마을 237농가를 대상으로 농기계 수명 연장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순회수리(교육)를 추진하면서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민사관 부차 지원사업도 병행해 추진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추진

무주군이 농민들을 대상으로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을 나선다. 고령화·여성화 되어가는 영농현장의 농업인을 위하여 안전한 농기계 수리와 작동법을 전달하고 적기영농을 통하여 생산비 절감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3월 2일부터 적산면 성내마을을 시작으로 오는 8월 무풍면 읍오마을까지 82개 마을을 대상으로 총 96회에 걸쳐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에 들어간다.

교육이 불편하고 농기계 수리 경험이 없는 산간 오지마을 중심의 현장 방문을 통한 수리 및 교육으로 자가 정비기술 능력을 습득, 향상시켜 농기계 고장으로 인한 영농활동 불편을 해소시킬 전망이다.

지난해 92마을 237농가를 대상으로 농기계 수명 연장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순회수리(교육)를 추진하면서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민사관 부차 지원사업도 병행해 추진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추진

무주군이 농민들을 대상으로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을 나선다. 고령화·여성화 되어가는 영농현장의 농업인을 위하여 안전한 농기계 수리와 작동법을 전달하고 적기영농을 통하여 생산비 절감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3월 2일부터 적산면 성내마을을 시작으로 오는 8월 무풍면 읍오마을까지 82개 마을을 대상으로 총 96회에 걸쳐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에 들어간다.

교육이 불편하고 농기계 수리 경험이 없는 산간 오지마을 중심의 현장 방문을 통한 수리 및 교육으로 자가 정비기술 능력을 습득, 향상시켜 농기계 고장으로 인한 영농활동 불편을 해소시킬 전망이다.

지난해 92마을 237농가를 대상으로 농기계 수명 연장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순회수리(교육)를 추진하면서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민사관 부차 지원사업도 병행해 추진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추진

무주군이 농민들을 대상으로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을 나선다. 고령화·여성화 되어가는 영농현장의 농업인을 위하여 안전한 농기계 수리와 작동법을 전달하고 적기영농을 통하여 생산비 절감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3월 2일부터 적산면 성내마을을 시작으로 오는 8월 무풍면 읍오마을까지 82개 마을을 대상으로 총 96회에 걸쳐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에 들어간다.

교육이 불편하고 농기계 수리 경험이 없는 산간 오지마을 중심의 현장 방문을 통한 수리 및 교육으로 자가 정비기술 능력을 습득, 향상시켜 농기계 고장으로 인한 영농활동 불편을 해소시킬 전망이다.

지난해 92마을 237농가를 대상으로 농기계 수명 연장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순회수리(교육)를 추진하면서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민사관 부차 지원사업도 병행해 추진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추진

무주군이 농민들을 대상으로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을 나선다. 고령화·여성화 되어가는 영농현장의 농업인을 위하여 안전한 농기계 수리와 작동법을 전달하고 적기영농을 통하여 생산비 절감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3월 2일부터 적산면 성내마을을 시작으로 오는 8월 무풍면 읍오마을까지 82개 마을을 대상으로 총 96회에 걸쳐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에 들어간다.

교육이 불편하고 농기계 수리 경험이 없는 산간 오지마을 중심의 현장 방문을 통한 수리 및 교육으로 자가 정비기술 능력을 습득, 향상시켜 농기계 고장으로 인한 영농활동 불편을 해소시킬 전망이다.

지난해 92마을 237농가를 대상으로 농기계 수명 연장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순회수리(교육)를 추진하면서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민사관 부차 지원사업도 병행해 추진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추진

무주군이 농민들을 대상으로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을 나선다. 고령화·여성화 되어가는 영농현장의 농업인을 위하여 안전한 농기계 수리와 작동법을 전달하고 적기영농을 통하여 생산비 절감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3월 2일부터 적산면 성내마을을 시작으로 오는 8월 무풍면 읍오마을까지 82개 마을을 대상으로 총 96회에 걸쳐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에 들어간다.

교육이 불편하고 농기계 수리 경험이 없는 산간 오지마을 중심의 현장 방문을 통한 수리 및 교육으로 자가 정비기술 능력을 습득, 향상시켜 농기계 고장으로 인한 영농활동 불편을 해소시킬 전망이다.

지난해 92마을 237농가를 대상으로 농기계 수명 연장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순회수리(교육)를 추진하면서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민사관 부차 지원사업도 병행해 추진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추진

무주군이 농민들을 대상으로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을 나선다. 고령화·여성화 되어가는 영농현장의 농업인을 위하여 안전한 농기계 수리와 작동법을 전달하고 적기영농을 통하여 생산비 절감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3월 2일부터 적산면 성내마을을 시작으로 오는 8월 무풍면 읍오마을까지 82개 마을을 대상으로 총 96회에 걸쳐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에 들어간다.

교육이 불편하고 농기계 수리 경험이 없는 산간 오지마을 중심의 현장 방문을 통한 수리 및 교육으로 자가 정비기술 능력을 습득, 향상시켜 농기계 고장으로 인한 영농활동 불편을 해소시킬 전망이다.

지난해 92마을 237농가를 대상으로 농기계 수명 연장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순회수리(교육)를 추진하면서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민사관 부차 지원사업도 병행해 추진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추진

무주군이 농민들을 대상으로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을 나선다. 고령화·여성화 되어가는 영농현장의 농업인을 위하여 안전한 농기계 수리와 작동법을 전달하고 적기영농을 통하여 생산비 절감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3월 2일부터 적산면 성내마을을 시작으로 오는 8월 무풍면 읍오마을까지 82개 마을을 대상으로 총 96회에 걸쳐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에 들어간다.

교육이 불편하고 농기계 수리 경험이 없는 산간 오지마을 중심의 현장 방문을 통한 수리 및 교육으로 자가 정비기술 능력을 습득, 향상시켜 농기계 고장으로 인한 영농활동 불편을 해소시킬 전망이다.

지난해 92마을 237농가를 대상으로 농기계 수명 연장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순회수리(교육)를 추진하면서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민사관 부차 지원사업도 병행해 추진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추진

무주군이 농민들을 대상으로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을 나선다. 고령화·여성화 되어가는 영농현장의 농업인을 위하여 안전한 농기계 수리와 작동법을 전달하고 적기영농을 통하여 생산비 절감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3월 2일부터 적산면 성내마을을 시작으로 오는 8월 무풍면 읍오마을까지 82개 마을을 대상으로 총 96회에 걸쳐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에 들어간다.

교육이 불편하고 농기계 수리 경험이 없는 산간 오지마을 중심의 현장 방문을 통한 수리 및 교육으로 자가 정비기술 능력을 습득, 향상시켜 농기계 고장으로 인한 영농활동 불편을 해소시킬 전망이다.

지난해 92마을 237농가를 대상으로 농기계 수명 연장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순회수리(교육)를 추진하면서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민사관 부차 지원사업도 병행해 추진한다. /무주=전문선 기자